

'노상놀이야' 참여 5개 시·군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거리극축제 고창·부안·익산·남원·전주서 상설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대상지(시·군) 및 공연프로그램 공모에서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대표 관광지의 지역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퍼레이드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주말 낮 시간에 상설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사업수행 주체)은 △고창 (사)고창농악보존회 △부안 포스댄스컴퍼니 △익산 (사)국악예술원 소리피 △남원 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 △전주 사회적기업 합굿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 등 총 다섯 곳이다.

고창 지역은 (사)고창농악보존회 주체로 공연프로그램은 고창 학원관광농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축제(청보리밭 축제, 가을꽃 축제) 컨셉에 맞춰 진행, 고창농악과 판소리를 결합한 문화유산 퍼레이드다.

부안 지역은 포스댄스컴퍼니 주체로 축제장 일원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익산 지역은 (사)국악예술원 소리피 주체의 '백제무왕 남시오 행차 퍼레이드'다. 익산 미륵사지 및 지역 축제장 일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백제 무왕 스토리의 마당극 공연과 취타대, 가놀이 깃발단 등을 포함한 퍼레이드 행렬이 진행된다.

남원 지역은 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의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이 남원 관현무원과 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대상지 및 공연프로그램 공모에서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사진은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모습)

원예촌 일원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광한투를 건립한 방촌 황희 중심이 역사 해학극으로 체험마당, 풍물놀이, 소리춤, 퍼레이드로 펼쳐진다.

전주 지역은 한옥마을 태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공연 내용은 동학 전주성 입성의 흥겨운 모습을 전통 퍼레이드 형식과 소규모 거점 마당놀이로 표현했으며, 전북무형

문화재(제63호 전주기점놀이), 구전 민속들로 구성된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노상놀이야' 사업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새만금세계잼버리 등 전라북도 메가이벤트와 노상놀이야 사업을 연계해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음악으로 위로·새 봄 희망 이야기 한다

전북대 이은희 교수, 우크라이나 난민·튀르키예 위한 기부 콘서트 개최

전북대학교 이은희 교수(예술대 음악과)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리는 이번 독창회는 '사랑, 새 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 20번째 독창회는 꿈과 기원, 새봄, 사랑, 삶 등의 각 주제별 음악을 통해 위로와 함께 새 봄의 희망을 이야기 한다.

공연에서 이 교수는 포스터의 '아름다운 꿈'을 비롯해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등의 곡으로 꿈과 기원의 의미를 전하고, 슈베르트의 '봄의 신앙'과 임금수의 '강 건너 봄 오듯', 김동진의 '목련화' 등으로 새 봄의 신선함을 읊조린다.

또한 홍난파의 '사랑'과 김순애의 '그대 있음에', 리스트의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레하르의 '뜨거운 내 입술에 입맞추고' 등의 곡을 사랑과 삶의 의미를 더한다.

한편 이번 공연을 통한 티켓 수익금과 기부금 등은 전액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소프라노 이은희 독창회 포스터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근무복 논란... "다양한 의견 수용"

전통·현대 융복합 다각도 작업 검토

"시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살린 근무복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나겠습니다."

한복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최근 일본 복장과의 유사성 논란으로 한복 근무복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해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전과 현대의 융·복합적 요소를 가미해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일본 의상과의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복은 방탄소년단, 유재석, 장윤정 등 유명인들의 한복을 디자인해 온 모던 한복브랜드 (주)리슬의 황이슬 대표가 디자인한 생활한복을 활용, 전당로고 동정을 추가해 제작됐다. 이 자리에서 황이슬 대표는 한복 근무복의 왜색 논란과 관련해 "고중에 의한 명백한

한복"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조선시대 칼질을 기본으로 삼아 제작했고, 바탕의 검은색은 우리 고유의 전통 오방색 중 하나의 색으로, 왕이 입던 '현의', 학자들의 '실의'에 쓰이는 색과 동일하다"며 "중정의 너비 역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넓으면 한복, 좁으면 일본 옷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미스유니버시티 선발대회에서 이지선씨 옷의 일본 무너복식 논란, 2020년 블랙핑크 의상을 두고 기모노를 베낀 것이란 주장 등은 대부분 의상에 대한 선입견과 한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들"이라며 "무엇보다 한복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 그래서 한복을 알려나가는데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도영 원장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복 근무복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한복의 다양성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한복의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지역의 고유 문화예술자원과 군민 삶의 양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부안군에서 문화예술로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기반하여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창작역량 강화 및 전시·발표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금은 사업계획 내용 등에 따라 최소 2백만원~5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공모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bacf.or.kr/>) 또는 부안군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문화도시 사업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첫 해를 맞이해 사업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창군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21일 상하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전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된다. 14개 읍면 핵심리더(이장, 부녀회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 등)를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다.

특히, 설정한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의 '문화도

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설명, 올해 사업에 대한 절차 및 참여방식 안내 등 맞춤형 설명으로 진행되며 군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로 군민들에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군민 누구나가 사는 지역과 연령, 개인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문화도시가 다담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임진성 개인전 개최

오는 22~27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임진성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30번째 개인전이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세월에 담아낸 시간'이라는 주제로 금강산이 지닌 이중성을 금분을 이용해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작가의 '몽유금강'은 아름다운데 슬프고 웅장한데 처연한 금강산의 아이러니 그 자체를 보여준다. 얼핏 화려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슬픔이 풍겨오는 금강, 웅장하고 묵직한 산세와는 대조적으로 동동 떠다니며 표류하는 금강산의 모

습이 마치 우리 민족이 걸어온 불운의 시절을 상징하는 듯하다.

작가는 "'몽유금강'을 통해 보는 이들은 잠시나마 삶의 진리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진성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단원미술제, 홍제 미술제, 행주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